

2013년 7월 (제 10호)

National Maritime Museum Webzine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기다리는 바다

김건일

바다를 보았네 바다를 보았네
어릴 적 바라보기만 하던 꿈꾸기만 하던
바다를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우연히 보게 되었네
외로울 때 아무도 없을 때
산에서 멀리 바라보며 꿈만 꾸던 바다여 그 바다여
어른이 되어 배를 만들 수 있다면
찾아 가리라던 그 바다 호흡은 거칠고
머리카락 휘어지고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은
우연히 그 어릴적 바다가 그 맑고 깨끗한 바다가 보여서
그 바다가 다시 소년이 되어서 바다를 찾아가네
기다리던 바다를 꿈의 바다

김건일(1942.6.2~)

제6회 서포(김만중)문학상 대상수상

제23대 문협 부이사장 재임

시집으로 「풀꽃의 연가」, 「땀복새는 울지도 않았다」, 「꿈의
대리 경작자」 등이 있다.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C O N T E N T S

PART 01	열린마당 鄭澈, 동해바다를 그리다 <통천문암 通川門巖>	03
PART 02	박물관 둘러보기 해양경영 5천년 이야기-2	05
PART 03	기획전시 <뉴욕자연사박물관 기후변화와 해양환경展> 국내해양환경편	07
PART 04	소장품 이야기 녹터널 Nocturnal	09
PART 05	박물관 사람들	11
PART 06	박물관 교육행사	12
PART 07	박물관 소식	13
PART 08	관람후기	14



열린마당

鄭敎, 동해바다를 그리다 〈통천문암 通川門岩〉

통천문암 通川門岩, 18세기경, 정선, 수묵화, 정선, 51.8 x 131.8 cm, 간송미술관 소장

강원도 통천 通川 넓은 해변가에 깎아지른 절벽과 기암이 마주보고 솟구친 절경이 있다. 사람이 그 사이를 왕래하면 마치 문처럼 보여 문암 門岩 이라고 한다. 이 그림은 정선 鄭敎, 1676~1759 이 그린 〈통천문암 通川門岩〉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넘실대는 파도를 배경으로 중앙에 우뚝 솟은 기암 奇巖 과 왼쪽으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마치 문설주처럼 서있는 모습과 그 사이를 지나가는 두 무리의 선비 일행이 그려져 있다.

화면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2/3 가량을 넘실대는 파도를 그려 넣은 것인데, 먼 바다에서나 볼 수 있는 너울을 그린 듯 섬세하게 그려져 있다. 일반적인 산수에서 많이 쓰는 시점인 부감의 시각을 적용하여 멀리 원경은 하늘에 서린 옅은 담묵의 구름 이외에 다른 경물 없이 아득해 보이고 중경은 모두 거대한 파도로 채워졌다. 파도는 오히려 멀어질수록 점점 세지고 있어서, 마치 파도가 아닌 거대한 기운이 문암을 지나는 인물들에게 수많은 팔을 뻗어서 부르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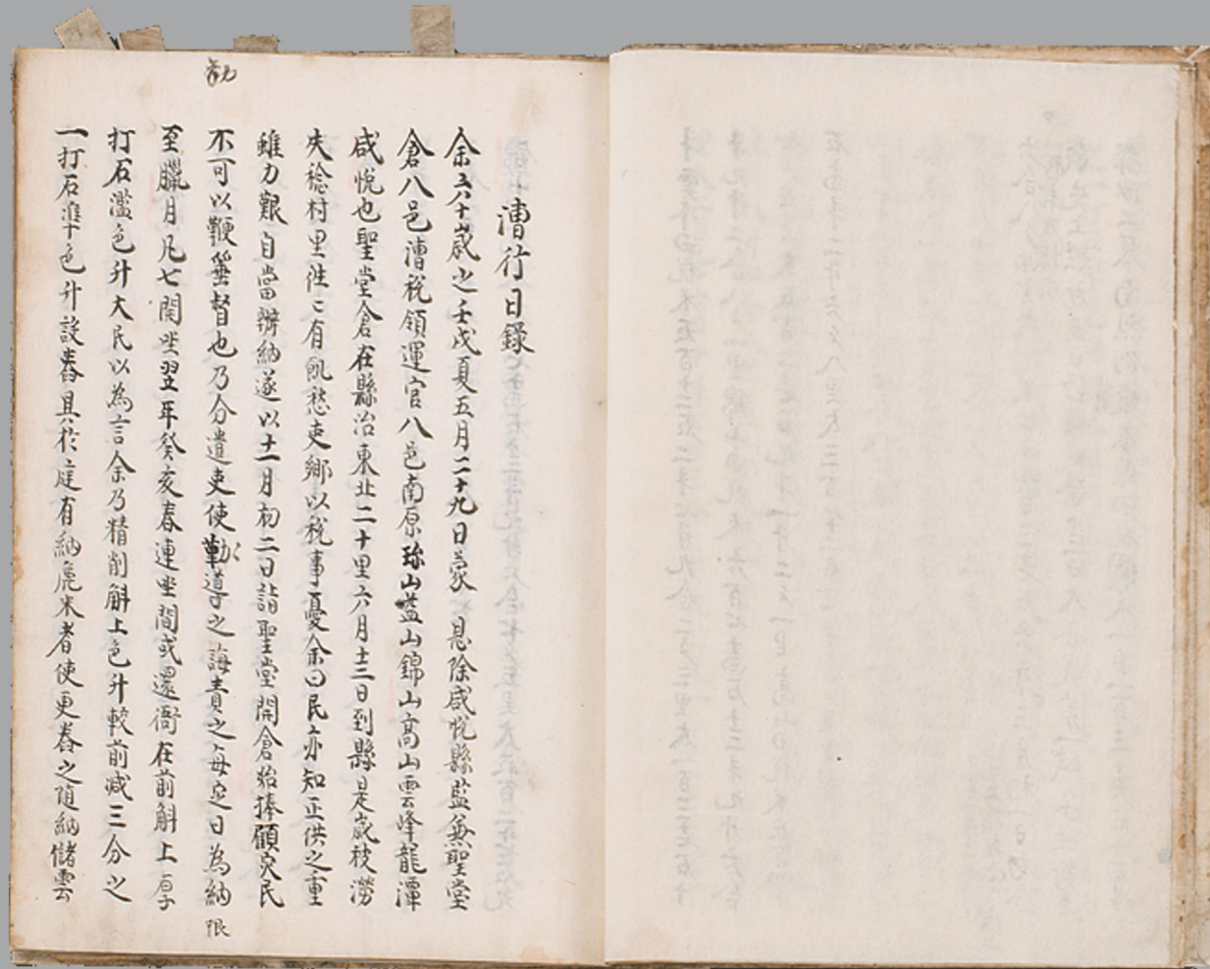
대학시절 친구들과 MT삼아 동해안에 놀러 간적이 있었다. 마침 날도 흐리고 바람도 제법 불어대서 난생 처음 본 동해바다에 해무 海霧 가 잔뜩 끼어서 어디까지가 하늘이고 바다인지 분간하지 못하였다. 하얀 백사장에 눈부신 태양을 기대하고 갔다가 적이 실망하긴 했지만, 그때 멀리 바라본 동해바다는 거대하게 일렁이는 파도와 아득한 해무가 겹쳐 마치 꿈속에서나 본 풍경인 듯 몽환적이기까지 했다. 〈통천문암〉의 바다는 그때 경험했던 동해바다의 인상을 불러일으킨다.

반면에 문암과 절벽은 파도와는 대조적으로 정선이 깎아지른 절벽을 묘사할 때 자주 쓰는 진한 먹의 수직선을 내려 그어 절애 絶崖 의 느낌을 강조하고 있고, 암벽 꼭대기 부분에는 역시 정선 특유의 T자형 소나무 무리가 있어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다.

유람하는 두 무리의 선비와 시종은 광활한 바다와 깎아지른 기암에 압도된 듯 발걸음을 멈춰 서서 각각 동해바다와 문암을 바라보고 있는데, 앞서간 지팡이 짙은 선비는 기암의 절경을 떠나기 아쉬운 듯 고개를 돌려 다시 한 번 눈에 담고 있는 모습이다.

겸재 정선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아름다운 우리 산하를 남종문인화풍으로 해석하여 시원스러운 필치로 그려낸 대화가 大畫家 였다. 대표작인 〈인왕제색 仁王霽色〉과 〈금강전도 金剛全圖〉 같은 그림에서 보듯이, 그의 산수도 속에 금수강산의 명승들은 오롯이 펼쳐져 한눈에 그 요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구도되어 있어, 동양문인화의 종주국이라 할 중국의 어느 산수도에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시각적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우리는 이를 ‘진경산수 眞景山水’ 라는 별도의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명산대천을 두루 유람하며 곳곳에서 느낀 장쾌함을 화면으로 전달하려는 듯, 이 그림에서도 정선의 필치는 시원스럽고 대담하다. 그가 그려낸 바다는 끝없이 넓고 깊은 동해 바다이다. 거대한 물결을 잠자코 바라보고 있자니 화가가 들었을 천둥 같은 파도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이렇게 〈통천문암〉 속의 부드러우면서도 거대한 운동세를 가진 옅은 먹의 유려한 파도와 굳건하게 서서 파도를 맞이하는 짙은 먹의 수직적인 기암절벽은 강한 대조를 이루어 보는 이의 마음에 쉽게 잊혀지지 않은 심상 心象 으로 맺혀진다. 정선이 조선의 화성 畫聖 이자 조종살활 操縱殺活 (산수의 경물을 재배치 하거나 대조를 이루어 부각시키는 방법)의 대가임이 이 그림에서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조행일록 漕行日錄》, 1863년, 종이, 23.5×31.4

박물관 둘러보기

해양경영 5천년 이야기-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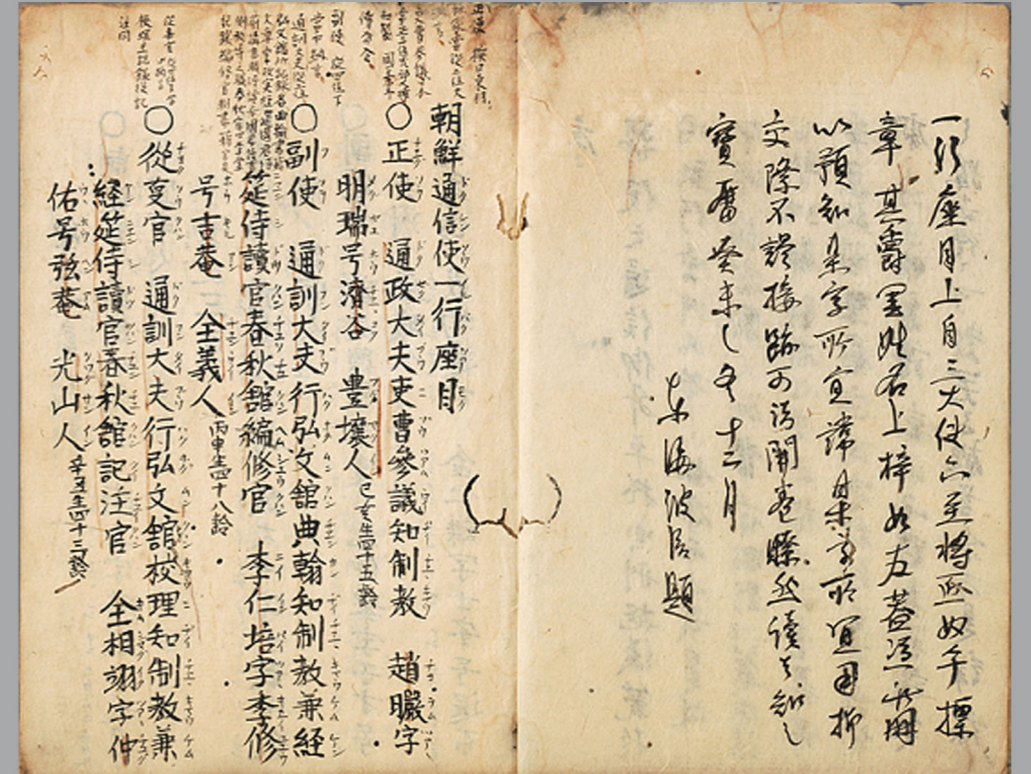
고려시대는 우리의 역사에서 국제 무역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였다. 고려인들은 중국 송에 진출하였는데, 당시 송은 고려관 高麗館 을 세워 수식을 제공할 만큼 이들을 우대하였다. 당시 고려는 중국, 일본, 아라비아 등과 국제무역항 벽란도를 중심으로 대외무역을 활발히 하였으며, 도서 연안 지역에서 해양활동이 활발하였다.

조선은 고려시대와는 달리 명 明 중심의 국제질서 아래서 일본 日本, 여진 女眞, 유구 琉球 등과 교류를 맺었다. 조선시대 중국·일본과의 교류는 주로 사행 使行 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선시대는 대외적으로는 명의 해금정책 海禁政策 으로 고려에 비해 해양을 통한 교류가 활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청이 요동을 점령한 17세기 초에는 바닷길을 이용한 해로사행 海路使行 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왜구의 약탈을 막고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갖추기 위해 섬과 해안의 주민을 내륙으로 옮기는 고려의 공도정책 公島政策 을 계승하였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 왜구를 진압하여 연해 지역이 안정되었고,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쌀을 강과 바다를 통해 한양으로 운송하는 조운 漕運 으로 연안 해운은 꾸준히 활성화되었다.

임진왜란 후 일본과의 외교관계는 단절됐으나 일본의 요청으로 국교를 재개하였다.

조선통신사는 약 200여 년간 청의 세력을 견제하고 일본의 국정을 탐색하는 목적을 수행하였다. 조선 후기 통신사는 유학, 문학, 의학, 미술 등 조선과 일본의 활발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는 통로이자 외교사행 外交使行 이었다.



《조선통신사일행좌목》 1764년(영조 39) 조선통신사사행과 관련된 일본 측의 기록이다. 당시 조선통신사 일행들의 인원이 열거되어 있다.

19세기는 “이양선 異樣船 의 시대”라 할 만큼 서양 배들의 출몰이 빈번하였다. 1832년 영국 상선 애머스트호가 통상을 요구한 이후, 영국과 프랑스 등의 함선들은 조난이나 탐사·통상·선교·군사적 응징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조선연안에 출몰하였다. 19세기 초 중국과 일본은 서양에 문호를 개방하였지만, 쇠국정책을 고수하던 조선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거친 후 운요호 雲揚號 사건을 계기로 고종 13년(1876년) 일본과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를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부산(초량항)·동해(원산항)·서해(인천항)에서 각각 항구를 개방하여 일본의 경제·군사적 침투를 보장하고, 영사재판권에 의한 치외법권 인정, 거류지 설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항지는 부산(1876)·원산(1880)·인천(1883)이었고, 그 후 목포, 진남포, 마산, 군산 등 여러 항구가 열렸다.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맺은 근대적 의미의 첫 조약이나 일본에 의해 맺어진 불평등 조약으로, 조선이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 문을 여는 시발점이 되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조선 정부가 서양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체결하기 시작한 19세기말부터 일제 식민시기까지 서양의 군인, 외교관, 상인, 여행가, 선교사 등 많은 외국인들이 조선을 다녀갔고, 이들이 남긴 기록물 또한 백과사전류, 동양학서지, 여행안내서, 지도첩, 전기, 선교문학 등으로 다양하다. 이는 개항과 더불어 유입되기 시작한 외래 문물로 근대화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당시 조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고 있다.

기획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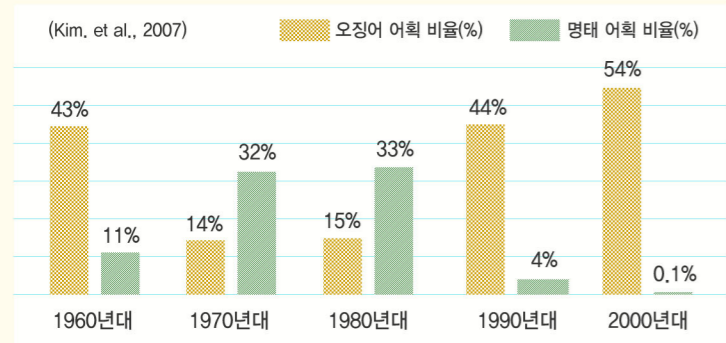
〈뉴욕자연사박물관 기후변화와 해양환경展〉 국내해양환경편

한국의 기후는 세계 다른 나라보다 평균 2배 이상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에 따른 해양의 변화도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대기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평균 해수면의 수온이 상승하고, 해수면이 상승하여 우리나라의 대표 어종이 달라지고 있다. 기획전시 중 국내의 해양환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연안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와 이를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

1. 수온증가

- 과거 100년간 동해의 표층수온은 약 2°C가 상승하였으며, 21세기 말에는 약 2.4°C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한류성 어종은 감소하고 있고, 난류성 어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형가오리, 해파리, 청상아리 등의 열대성 어종이 출현하여 어로활동에 장애를 유발하고 있다.



해파리 부유유생, 이미지출처 : 해양수산부



청상아리, 이미지출처 : NOAA

2. 해수면상승

-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시 침수가능면적과 영향인구

해수면상승 (시나리오#)	침수가능 면적(km ²)		침수가능 인구(천명)		비 고(서울면적 대비)	
	남한	한반도	남한	한반도	남한	한반도
1.0m(S10)	984,304	2,642,816	312,855	1,255,179	1.6배	4.4배
1.5m(S13)	1,095,505	2,941,528	453,506	1,486,893	1.8배	4.9배

주: 1. 침수가능 지역 및 인구는 해수의 조석 및 태풍해일을 고려한 수치임 2. 서울시 면적 605km² 기준
자료: 조광우 외(2002); 한화진 외(2007) 재인용

주요 항만별 해수면 상승률(cm/yr)

항명	속초	목포	울릉도	부산	여수	제주	서귀포	목포	군산
상승률	0.2	0.06	0.2	0.2	0.2	0.5	0.6	0.08	0.1

자료: 국립해양조사원

3. 기후변화 적응대책

-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해양 부문 국가 대응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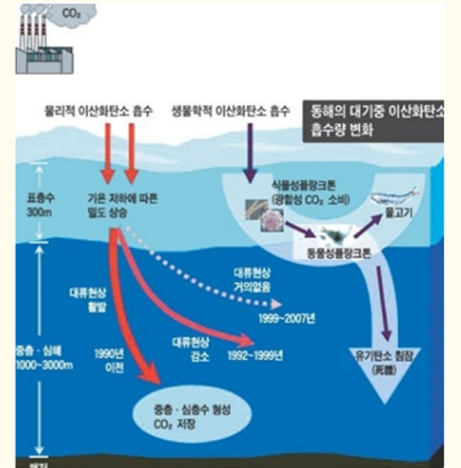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연안재해정보관리 시스템 및 생태계 기반 연안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해수면 상승에 따른 적응대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연안 업무 공무원이 재해발생 시 즉각적인 대비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안침수 예상도 및 3차원 해안침수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CO2를 녹여 저장하는 바다

1. 동해는 ‘CO2 삼키는 하마’

- 바다는 이산화탄소(CO2)를 무려 20~30%나 흡수하고 있다. 바다가 CO2를 저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다.
- 첫번째는 표층에서 식물플랑크톤이 흡수한 CO2를 먹이사슬을 통하여 심층으로 이동하는 방법이며, 두번째는 CO2를 바닷물에 녹여 심층으로 가라 앉는 것이다.
- 동해는 태평양이나 북대서양 등 다른 바다보다 CO2를 효과적으로 흡수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매년 우리나라 7년치 CO2 방출량의 5%를 흡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 : <http://cafe.daum.net/monk-at-eden/>

바다숲

1. CO2를 흡수하는 바다숲

- 바다숲은 온대림이나 열대우림같은 지상의 숲보다 훨씬 많은 CO2를 흡수한다.
- 바다 식물이 CO2를 이용, 광합성을 하여 만드는 산소의 양은 전체 지구 산소의 70% 이상으로, 진정한 지구의 허파는 바다 식물이라고 할 수 있다.



평 위 잔디밭을 연성시키는 바닷속 푸른 잔디밭, 이미지출처 : NOA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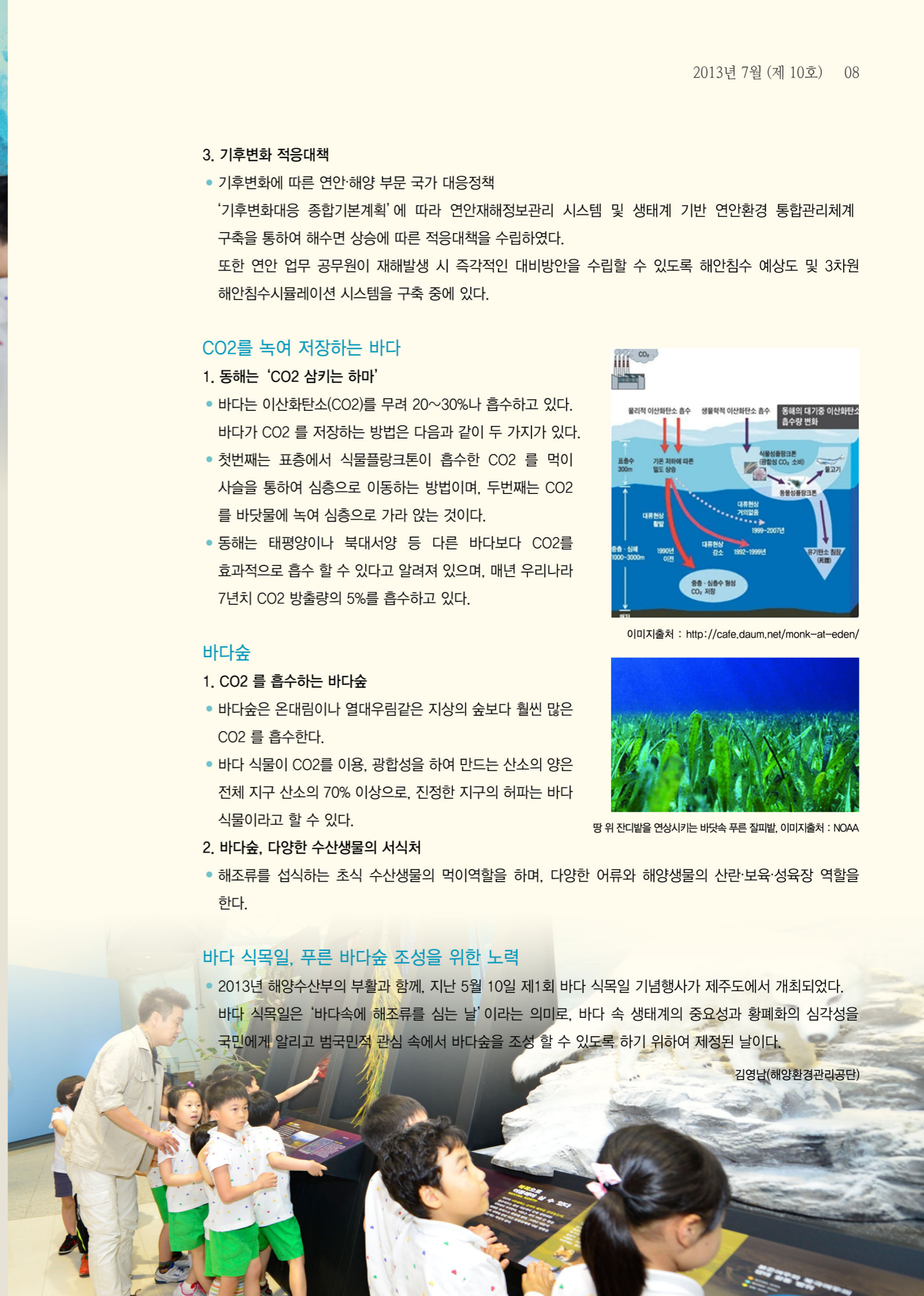
2. 바다숲, 다양한 수산생물의 서식처

- 해조류를 섭식하는 초식 수산생물의 먹이역할을 하며, 다양한 어류와 해양생물의 산란·보육·성육장 역할을 한다.

바다 식목일, 푸른 바다숲 조성을 위한 노력

- 2013년 해양수산부의 부활과 함께, 지난 5월 10일 제1회 바다 식목일 기념행사가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바다 식목일은 ‘바다속에 해조류를 심는 날’이라는 의미로, 바다 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 관심 속에서 바다숲을 조성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날이다.

김영남(해양환경관리공단)



소장품 이야기

녹터널 Nocturnal

녹터널은 밤하늘에 특정한 별의 위치에 기초해 시간을 결정하는데 사용했던 도구로 항해할 때 주로 사용되었다. 항해 시에 정확한 현재시간을 알면 밀물과 썰물의 시기를 계산하여 항해에 쓸 수 있고, 현재 나의 위치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녹터널은 주요 항구의 조수와 관련된 표가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녹터널이 최초로 문헌에서 언급된 것은 스페인 천문학자 코르테스 알바카 Martín Cortés de Albarca, 1510~1582 가 1551년에 출판한 그의 저서 『항해의 기술 Arte de Navegar』에서다.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약 460년 전에 사용했던 오래된 항해도구임을 알 수 있다.

1. 녹터널의 구조

녹터널은 일반적으로 나무 또는 황동으로 제작되며, 바깥의 판 disc 에는 일년의 12달을 표기하고 안쪽의 판에는 시간뿐 만 아니라 기준이 되는 별의 위치점을 표기하고 있다. 또 판의 같은 축에서 회전을 하는 팔 Arm, 또는 조준기 alidade 이 있다. 그리고 중앙의 중심 구멍 pivot point 을 통해서 시간 측정의 기준이 되는 별을 보게 된다. 종종 내부의 판에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이 되는 별자리와 별들의 표시를 해두기도 한다.



녹터널, 1588년(추정), 프랑스

이 녹터널은 세 개의 황동 판을 겹쳐서 만들었는데, 제일 바깥 판 disc 에 12달을, 중간 판에 날짜와 시간을 새겼다. 또 제일 안쪽 판에 회전을 하는 팔이 있다. 손잡이에는 작은 나침반이 있고, 뒷면에는 별자리를 표시한 아래 판 위에 화려한 그림을 장식한 작은 판을 겹쳐놓았다. 뒷판에 '1588'로 보이는 글씨를 새겨 제작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2. 녹터널의 사용법

밤의 북반구에서는 모든 별들이 밤에 북극성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별들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별의 현재 위치를 통해 시간을 알 수 있다. 마치 해의 위치로 시간을 알아내는 해시계와 같은 원리 이다.

별의 위치는 일 년의 시간을 기준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녹터널에는 일년의 시간에 기반을 둔 날짜와 북극성을 비롯한 다른 일반적인 별들을 관찰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다. 녹터널은 여러 다이얼로 구성된 간단한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다이얼들을 현재의 날짜와 기준 별의 위치에 맞춰주면 시간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북두칠성 큰곰자리, Ursa Major 의 지극성 pointer stars 또는 소북두칠성 작은 곰자리, Ursa Minor 의 베타성 코차브 Kochab 이다. 카시오페이아 Cassiopeia 자리에 있는 별인 쉘다르 Shedar 도 사용되기도 하는데 큰곰자리의 정반대편에 있기 때문이다.

녹터널을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 바깥 판과 중간 판을 돌려 오늘의 날짜를 맞추어야 한다. 그 후 중심 구멍을 통해서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안쪽 판에 있는 팔이 기준이 되는 별 2개와 평행하도록 회전시킨다. 이 때 팔이 내부의 판에 표기되어 있는 시간의 한 지점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시각이다.



녹터널 사용법

● 국립해양박물관 3층 상설전시실 해양역사·인물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박물관 사람들

햇살이 찬란하게 부서져 거리위로 쏟아지는 초여름입니다. 허공에 손을 대고 햇살을 만져보니 여름이 물씬 느껴집니다. 뜨거운 태양의 계절에 박물관 관람객을 처음 맞이하는 곳, 바로 주차장입니다. 1가구 1차량 시대, 면허만 있으면 차량을 소유하는 시대가 되었고 더군다나 박물관의 지리적 위치상으로도 차량 없이는 방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박물관의 주차장은 언제나 관람객들의 차량으로 붐빉니다.

작년 7월, 박물관이 성공리에 개관을 하고 부산시민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발길이 끊이지 않아 박물관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주차장을 통제하고 관리 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되었네요. 한편으로는 관람객이 조금은 덜 왔으면... 버스를 이용해 주었으면... 하는 암체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방문하시는 분들의 "수고 하십니다." 한마디에 피로는 사라지고 박물관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주차부스 내부 자리에 앉아 입구를 들어서는 관람객을 맞이할 때는 처음 접하는 곳이 주차부스이며 박물관의 첫인상이 된다고 생각하니 책임감과 자긍심도 느낍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들이 나온 가족들이나 삼삼오오 모여 견학 오는 학생들에게나 무던히도 더운 여름이었지만 그래도 박물관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을 얼굴에 한 것 채우고 들어서는 모습을 볼 때는 나 자신이 보람을 가집니다.

넓은 부지의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장의 특성상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장소이다 보니 다양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자주 발생하는 접촉사고의 경우는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아직은 성숙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박물관의 여건 상 외부에 설치된 CCTV는 주차장 전체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차량에 대한 각각의 자료를 남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실수로 상대방의 차량을 긁고도 보는 이가 없다는 이유로 뺑소니를 치거나 오히려 더욱 큰소리를 내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차량 유동이 많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아르바이트생 주차요원들이 함께 일을 합니다. 이들은 박물관에 소속된 인원이 아니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오지만 온갖 매연을 마시고 추운 날에는 추운대로 더운 날에는 더운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일을 합니다. 고생하는 친구들에게 인사라도 건네보는 것은 어떨겠습니까?

박물관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있기에 많은 분들이 박물관을 사랑해주고 발걸음 해주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이야기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립해양박물관 화.이.팅!

최석근, 김미숙(국립해양박물관 주차팀)



박물관 교육행사

Happy Weekend 온바다를 누벼라! 아라온호

7월~8월 매주 토요일 14:00~15:30 / 초등학생(3~6학년)을 포함한 가족 50명 / 제1강의실 / 인터넷 선착순 접수 / 무료(재료비 없음)

극지의 결빙해역을 거침없이 항해하는 우리나라 최초 쇄빙연구선(아라온호)의 역할과 우리나라가 건설한 극지연구소와 연구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고 아라온호 모형을 만들어 보는 체험프로그램



어린이해양과학교실 나는야 해양학자

2013년 7월 23일 ~ 8월 1일 14:00~16:00 / 초등4~6학년 / 30명 / 제1강의실 / 인터넷 및 전화접수(수강생으로 모집) / 무료

해양클러스터 내 주요기관과 연계하여 흥미로운 과학실험과 현장체험을 통해 바다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방학 특별프로그램



일자	시간	일정	장소	비고
7월 23일(화)	14:00~16:00	개강식 및 전시관람 교육일정 안내 학습지 이용 전시해설 및 관람	박물관 강의실, 전시실	국립해양박물관
7월 24일(수)	14:00~16:00	해양환경체험 전시관람 및 기름오염방제 체험	교육원 강의실 조파수조동	해양환경개발교육원
7월 25일(목)	14:00~16:00	해양오염의 심각성 이해 바다에는 어떤 보물이 있을까? 바다가 아파요! 기름오염으로부터 바다 지켜내기	교육원 강의실	해양환경개발교육원
7월 30일(화)	14:00~16:00	해양생물관찰 해부실험 및 관찰일지 작성하기	박물관 강의실	국립해양박물관
7월 31일(수)	14:00~16:00	영도 해양생태 이야기	절영해안	영남씨그랜트
8월 1일(목)	14:00~16:00	나는야 해양학자 해양탐구보고서 만들기 수료식	박물관 강의실	국립해양박물관

박물관 소식



뉴욕자연사박물관 기후변화와 해양환경전 개막 2013.6.3

국립해양박물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뉴욕자연사박물관 기후변화와 해양환경전'이 9월29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는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뉴욕자연사박물관 기후특별전에 해양환경 부문을 추가해 더욱 볼거리가 풍부해졌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다양한 환경문제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직접 체험하고 실천 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 · 영도구청 해양문화예술 상호교류 업무협약 체결 2013.6.13

국립해양박물관과 영도구청은 문화가 살아있는 숨 쉬는 영도를 위한 해양문화예술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영도구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해양문화예술분야에 대하여 상호 긴밀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과 지원으로 상생을 도모하고, 고품격의 해양 문화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 · KORAIL 어촌지역 아동 초청 "해양문화 체험" 행사 2013.6.29

국립해양박물관은 코레일과 공동으로 어촌지역의 아동을 초청하여 '해양문화 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초청행사의 주인공은 통영시 소재의 진남초등학교 학생 27명으로, 생애 첫 기차여행으로 부산을 찾아 국립해양박물관 관람, 4D영상관 체험을 했으며 '소방정705호'를 탑승하여 박물관에서 오록도를 둘러보는 해상관람체험을 하였습니다.

부산일보

2013.6.5

국립해양박물관 누적 관람객 수 150만 명 돌파



국립해양박물관의 누적 관람객 수가 개관 1주년을 한 달 앞두고 150만 명을 돌파했다.

5일 국립해양박물관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집계한 누적 관람객 수는 151만 3천770명으로, 국내 박물관 중 연간 관람객 수 부문에서 3위에 올랐다.

국내 박물관의 연간 관람객 수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연간 312만 8천여 명(2012년 기준)으로 1위, 국립민속박물관이 264만여 명(2012년 기준)으로 2위다.

영국 문화예술 전문매체 '아트 뉴스페이퍼(The Art Newspaper)'의 세계 관람객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해양박물관의 연간 관람객 수는 세계 29위로 예상된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지난해 7월 우리나라 첫 종합 해양박물관으로 개관. 같은 해 12월 누적 관람객 수 100만 명을 넘어섰다. 주 중에는 평균 3천여 명, 주말에는 평균 9천447명이 다녀갔다.

국립해양박물관 박상범 관장은 "다양한 특별전시전과 지역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유치했고, 복합문화기능을 갖추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해양박물관 자체 설문 결과 전시관과 시설 만족도, 직원 친절도 항목에서 평균 A등급을 유지했고 관람객의 80% 이상이 재방문이나 추천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해양박물관은 4일부터 9월 29일까지 '뉴욕자연사박물관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특별전'을 진행한다.

해양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해양박물관, 환경재단,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공동 주최하고 해양수산부, 환경부, 부산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주한미국대사관, 기후변화센터가 후원한다.

이대성 기자

관람후기

국립해양박물관을 다녀와서

수요일 오후 학교에 전화통화가 걸려왔다. 농어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국립해양박물관에서 해양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전화였다. 학생들에게 바다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학생들에게 생소한 해양박물관이란 장소는 3명이 바다에 둘러 쌓인 우리나라에서 바다의 중요함과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우기에 좋은 기회였다.

우선 학생들 21명과 기차를 타고 부전역까지 갔다. 그리고 국립해양박물관에서 후원한 관광버스를 타고 영도에 있는 박물관으로 갔다. 나도 국립해양박물관은 처음이라 상당히 기대되고 어떤 것들이 전시되었는지 궁금했다. 박물관이 자리 잡은 곳은 바다전경을 바로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 드넓은 바다를 보니 마음이 더 없이 좋았다. 학생들도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바다를 구경하고 식사도 했다.

박물관에 들어서니 학생들에게 박물관에 대해 안내하는 분이 친절하게 우리 온양초 식구들이 맞이 해주었다. 2층으로 올라가니 해양지도, 거북선, 옛날 배, 일본 배와 우리나라의 배 등 다양하게 전시되었다.

눈에 띄는 건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고지도 3개도 있었다. 평소 역사관련 수업을 하면서 일본과 독도 분쟁에 대해 학생들에게 이해해줄 필요성을 느꼈는데 마침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증명해주는 고지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물이 얇은 해안가에서 전쟁을 했을 때 일본배의 특징과 우리나라 배의 특징에 맞추어 상황을 제시해 주어 이해하기 쉬웠다.

수족관에서 학생들이 바다거북, 상어 등을 보고 상당히 신기해하였다. 해운대 아쿠아리움보다 크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바다 생물에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리고 실제로 해양생물을 만져보는 체험을 통해 좀 더 바다생물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4D영화 관람을 하였다. 'Happy Feet'이라는 영화였는데 내용은 사람들이 남극의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펭귄들이 먹을 식량이 없어 힘들어 한다는 내용이었지만 단순한 재미를 떠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영화였다.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욕심을 억제해야 한다는 좋은 교훈을 주었다.

국립해양박물관에서의 하루 체험은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가르치는 이론적 지식이 아닌 실제로 체험하면서 학생들이 무언가를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교육이었다. 이번엔 학생들에게 이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주신 국립해양박물관 관계자 분들 고맙습니다.

서홍식(울산 온양초등학교 교사)





바닷가에서의 숨, 소리,

Life at Badang[sea], and Sumbisori[breathing sound]



그리고 숨비소리

2013.03.26 ~
2013.07.28

국립해양박물관 4층